

# 장흥군, 남파랑길 '정남진대교' 야간조명새단장

### 정남진대교 경관 조성사업 10억원 들여 야간조명 설치 김성 군수 "장흥군만의 특색있는 해안 관광 명소 만들 것"

장흥군 안양면 장재도 일원에 위치한 정남진대교가 아름다운 야간조명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2023년 남도특화경관 조성 공모사업에 '바다와 산 그리고 빛이 어우러진 정남진대교 경관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장흥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정남진대교 야간 경관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정남진대교는 길이 430m, 폭 14.5m 규모로 2022년 1월 개통했다.  
강진·장흥·보성을 연결하는 남파랑길에 위

치한 해상교량으로 다도해의 수려한 풍광으로 걷기와 자전거 라이딩에 필수코스 손꼽힌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정남진대교에 장흥만의 특색있는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남파랑길 중 야경이 좋은 랜드마크의 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추진 중인 수문권역, 장재도권역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남파랑길과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2023년은 장흥군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했다"며,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해 장

흥군만의 특색있는 해안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완도군, '귀농귀어 희망학교' 교육생 모집...5월 11일까지

완도군은 '귀농·귀어 희망 학교'의 귀어·귀촌 과정 제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총 20명을 모집하며, 모집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완도군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예비 귀어인 및 완도군 전입 5년 이내 귀어인, 재촌 비어업인으로 특히 청년 귀어인을 위해 만 18세 이상-만 40세 이하 신청자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 시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교육은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신지면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에서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수산 기초 이론 교육과 어선어업 및 어촌 체험 등 현장 교육 등이다.  
교육 수료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약산면 어두마을에서 진행 중인 '완도에서 살아보기(귀어행)' 사업의 어촌 체험 및 어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최소 20일-최대 90일)를 제공한다.  
교육 신청은 방문, 우편, 이메일(yj2012@korea.kr), 팩스 등을 통해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공고문 확인 및 완도군청 인 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7), 귀촌지원센터(061-555-6060)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강진군, 화훼산업 어려움 극복 온라인 직거래 판매행사

강진군은 코로나19에 따른 화훼산업 어려움을 온라인 직거래 판매로 극복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온라인 직거래 판매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진군은 국토의 남단에 위치한 온난한 기후 여건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화훼 재배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장미, 수국, 꽃작약 등 118 농가, 57ha에서 화훼류를 생산하며 전남 대표 화훼도시이다.  
현재 강진군 34농가가 15.3ha의 장미를 재배해 전라남도 재배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국은 전남의 84%, 꽃작약은 95%를 생산해 각각 1위를 차지한다.  
특히 '청자골 장미'는 장미의 화색이 선명하고 향기가 짙어 전국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평가 받으며, 강진산 수국은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꽃색이 선명하고 화려해 최고의 품질로 사랑받는다.  
강진=김영일기자

# 해남군, 황산 옥공예촌에 청년마을 조성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농농길' 선정...사업비 3억원 확보

해남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 일거리 실현,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에서는 청년단체(썬마고)가 제안한 '농

농길(황산면 옥공예마을)'이 선정되어 2년간 총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썬마고는 황산면 옥공예마을 중심으로 구 옥동초등학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논두렁DJ페스티벌, 옥매관산 다크투어 등 세부사업을 유기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도내 34개 청년단체가 응모해 최종 5개소가 선정된 가운데 농농길 프로젝트는 기존 마을

과 연계한 참신한 사업계획으로 청년인구 유입과 옥공예마을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호평을 받았다.  
황산면 옥동리는 옥동, 옥연, 삼호 마을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근 옥매산에서 나온 곱돌로 만든 옥돌공예 특산품은 60~70년대 최고의 명성을 떨쳤다.  
값싼 수입산이 범람하면서 감소했지만 현재도 6~7명의 옥돌공예 기술자들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 전시장 등을 통해 옥으로 만든 공예품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인근 옥매관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가 남아있는 장소로 역사 탐방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 옥동초등학교 일부 부지에 2024년까지 농업근로자들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국내 농업 근로자들의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과 청년을 잇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해남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개최 경기도 용인시 죽전1동에서 4년 만에 열려

진도군이 경기도 용인시와 오는 27일까지 죽전1동 죽전체육공원에서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진도에서 직접 생산·가공한 진도쌀, 잡곡, 울금, 구기자, 홍주, 활전복, 반건조생선, 김, 미역 등 60여 가지 우수 농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고객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행사를 끝으로 4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직거래 장터는 중간 유통과정이 없어 소비자는 시중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진도군은 품질이 우수한 청정 농수산물

을 수도권 지역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특산물 판로 확보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직거래장터를 시작으로 용인시와 매년 2회 직거래장터를 개최해 진도군 우수 농수특산물을 꾸준히 알리고, 도농이 함께하는 협력의 장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장터를 통해 특산물 홍보와 신선하고 품질 좋은 특산물 구매 기회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상생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